

# 욕심 자동사의 날말밭 연구

김 용 보\*

## < 目 次 >

- I. 머리글
- II. 욕심 자동사의 내용
- III. 마무리

## <요 약>

이 연구는 날말밭 이론에 근거하여 욕심에 관련된 자동사 82개 날말의 내용을 논의하고, 그 분절구조를 수형도로 제시함으로써 욕심 자동사의 어휘체계를 수립하였다.

욕심 자동사의 내용을 크게 욕심이 생성되는 내용, 음식에 욕심을 부리는 내용, 사물에 대한 욕심, 욕심부리는 행위, 색욕, 탐욕의 억제로 작은 밭을 나누고 원 어휘소를 중심으로 개별 날말의 분절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작은 밭의 분절구조를 수형도로 제시한 후 내용별로 전체적인 분절구조를 요약하였다.

내용에 따라 많이 분포된 순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식탐하는 내용과 어떤 사물에 대한 욕심이 각각 18개(21.95%)로 가장 많고, 욕심을 부리는 내용이 15개(18.29%)로 다음으로 많으며, 욕심을 억제하는 내용이 14개(17.07%)로 세 번째로 많다. 욕심이 일어나는 내용이 12개(14.64%)이고, 성욕이 6개(7.32%)로 가장 적다. 이러한 분포로 보아 우리 언어공동체는 음식이나 사물에 대한 욕심에 가장 큰 관심이 표현되어 있고, 욕심이 일어나는 상태와 욕심을 자제하는 내용에도 깊은 관심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 표현되어 있으며, 욕심이 생기는 내용과 성욕에는 관심이 적게 드러나 있다.

욕심을 내는 주체는 막연히 일반인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63개(76.83%)로 거의 전부이고, 신분이 드러난 것 중에는 공무원이 9개(10.98%)이고, 호색가가 6개(7.32%)이며, 직장인이 2개(2.44%)이다. 그리고 통치자와 금욕주의자가 각각 1개(1.06%)이다. 욕심 자동사의 내용 중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내용은 69개(84.15%)로 거의 전부이다. 이들의 내용 중 특히 부정적인 내용은 부정축재, 개염부리는 내용, 널름거리는 행위, 권세를 탐내는 행위가 각각 4개(4.88%)이고, 남의 물건을 탐내는 내용이 3개(3.66%)이며, 욕심내어 덤벼드는 행위와 안일무사를 피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챙기는 행위가 각각 2개(2.44%)이다. 그리고 '낭탐하다. 게걸들다. 견리망의하다' 등이 각각 1개이다. 반면에 바람직한 긍정적인 내용은 탐욕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13개(15.85%)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욕심을 부정적으로 관조하고 있는 세계상이 반영되어 있고, 욕심을 자제하는 세계상도 반영되어 있다.

### <Abstract>

A Wordfield Study of intansitive Verbs Semantically  
Related to a Greed.

KIM, EUNG MO

This paper is aimed at studying the relative standings(Stellnwert) of a greed related intransitive verbs of Korean in the wordfield(Wortfeld) in relation to Korean people's perspectives on the outside world. Prior emphasis is given to semantic differentiation of the intransitive verbs related to greed.

The archilexems will frist be set up by referring to the semantic contents(*Inhalt*) of thoese verbs related to a greed. Then, an attempt will be made to present a proper classification of sub-fields of the wordfield with the help of the archilexems. We will start with explaining the common semantic factor of the big field(*Großfeld*) of words, then go down to the small field(*Teilfeld*) for further elaboration of common characteristicts of articulated sub-fields. Finally, the idiosyncratic propertes of individual words are discussed so as to minimize redundancy in explanation. This study, by surveying and articulating a greed related words, sheds light upon how their semantic factor are definded and classified in the spiritual realm(*die geistige Zwischenwelt*) of Korean people and make possible the well formulated stracture of personality related vocabulary. As such this paper serves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inward spritual world as well as establising word structure that reveals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 words.

## I. 머리글

###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는 낱말밭(Wortfeld)<sup>1)</sup> 이론에 근거하여 현대 국어 중 욕심 자동사

1) Leo Weisgerber(1964:70)는 “ein sprachliches Feld ist ein Ausschnitt aus der muttersprachlichen Zwischenwelt, der durch die Ganzheit einer in organischer Gliederung zusammenwirkenden Gruppe von Sprachzeichen aufgebaut wird.”라고 하였다.

신익성(1974:57)은 “개개의 언어 요소는 더욱 큰 단계 안에서 지향되고, 이 관계로부터 비로소 의미 혹은 내재적인 규정을 얻는다는 견해는 현대 언어학의 체계 개념

가 지니고 있는 개개의 낱말(word)<sup>2)</sup>들이 하나의 낱말밭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치(Stellenwert)<sup>3)</sup>를 우리 언어공동체의 세계관(Weltansicht)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려고 시도된 것이다. 본고는 개별 낱말들이 하나의 밭(Feld)에서 어떠한 분절구조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해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언어의 내용 연구는 문현에 실려 있는 살아 있는 어휘를 발췌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야 에너르게이아(Energeia)적 언어 연구가 되는 것이다<sup>4)</sup>. 이 연구에서는 이희승(1985) 「국어대사전」에서 어휘를 발췌하고, 신기철·신용철(1982) 「새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지음(1992) 「우리말 큰사전」, 김광해(1993) 「유의어·반의어사전」에서 어휘를 점검 보충하였다.<sup>5)</sup> 논의의 방법은 어휘의 내용(Inhalt)에 따라 원어휘소(Archilexem)<sup>6)</sup>를 중심으

이다. 낱말밭은 언어 내용 연구의 방법론적 중심 개념이고 동시에 언어적 세계상을 알아내기 위한 열쇠이다. 우리는 낱말밭 안에서 언어 내용의 각인(刻印)과 한계를 위해서 결정적인 모국어의 전체를 파악한다”고 하였다.

- 2) E.A.Nida(1979:32)는 “To determine the linguistic meaning of any form contrast must be found, for there is no meaning apart from significant difference. If all the universe were blue, there would be no bluness, since there would be nothing to contrast with blue. The same is true for the meaning of word. They have meaning only in term of systematic contrast with other words which share certain features with them but contrast with them in respect to other features.”라고 하였다.
- 3) 홍승우(1988:93)는 “일정한 구성 요소의 수로 이루어진 한 낱말 영역 내에서 그 구성 요소가 차지하는 위치를 말한다. 한 낱말의 내용은 그 낱말의 고유가치(Eigenwert)와 위치가치(Stellenwert)에서 생긴다. 이때에 때로는 해, 달처럼 고유가치가 우세할 때도 있고, 위치가치가 결정적일 때가 있다”고 하였다.
- 4) 허 발(1985:173)은 “언어의 내용 연구는 문현학적 조작방법이 밭 연구에 있어 유일하게 믿을 만한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 5) 허 발(1997:396-398)에서 언어를 “에너르게이아로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를 그 모든 형식에 있어서 전적으로 창조적인 활동으로 여긴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언어도, 말하기로서의 언어도 다 에너르게이아이다..... 언어는 결코 에르곤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르곤(산물)은 다만 “추상적인” 언어, 즉 말하는 것에서 파생되어서 하나의 문법서와 하나의 사전 속에서 객관화된 언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6) Horst Geckeler(1973:23-30)는 “원어휘소는 한 낱말 전체(또는 상위분절) 내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밭(Feld) 속에서 기능하는 모든 어휘소에 대하여 내용적 기초를 제

로하여 부분밭(Teilfeld)으로 분류하고, 먼저 큰밭(Großfeld)<sup>7)</sup>의 공통 특성을 논의한 후 여기에서 분절되어 나온 작은 밭(Feld)의 공통 특성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개별 날말의 변별적 특성(Unterscheidende Züge)을 추가함으로써 논의의 중복을 줄였다.

우리는 욕심 자동사의 분절구조(Artikulation, Gliederung)<sup>8)</sup>을 고찰함으로써 욕심 자동사의 의미 요소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중간세계(die geistige Zwischenwelt)<sup>9)</sup>에서 어떻게 분절되어 있는가를 밝히게 되며, 자동사의 어휘

공하는 공통분모(Nenner)이다. 일정한 밭의 어휘소는 개별 언어에 있어서 어휘적 단위로서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휘소는 날말밭 속에서 기능하는 단위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 날말은 원어휘소로 집약되고, 날말밭 구성 요소가 어휘소(Lexem)이며, 이것이 다시 의의소성(Sem)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원어휘소는 원의미소(Archisememe)의 어휘적 실현이다.

E.A.Nida(1979:187)는 “Generic meanings are normally listed at the beginning of a set, either as constituting a separate domain or as fulfilling the function of a title for a domain. Such generic terms may be called archilexems in hierarchical classification”이라고 하였다.

- 7) 이익환(1986:66)은 “color : red, black, yellow 등에서 color는 포괄적인 단어이며, red는 부분장이다. 부분장들은 그 단계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장 역할을 하고, 그 장은 다시 자신이 거느리는 부분장들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여 날말밭은 계층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 8) Jost Trier(1973:7)는 “언어의 기본적인 본질은 분절이므로(Das durch die ganze Spracheherachende Prinzip ist Artikulation) 분절의 결과인 최종의 구성 요소는 본질과 사용에서, 그리고, 그 언어 전체에서의 분절성에 의하여, 그 위치가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개개의 날말들은 전체 영역에서 차지하는 수와 위치에 의하여 상호 그것들의 의미를 규정하며, 개개 날말의 이해는 전체 영역과 그것의 특별한 구조가 마음에 나타나는 것에 달렸다”고 하였다.
- 9) 허 발(1979:91)은 정신적 중간세계를 “음성형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물건」과 「일」에 마주치는 것은 정신적인 중간층을 통해서이다. 이때에 음성형식이 언어(모국어)에 속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물건」과 「일」은 외계(자연, 물질문명)에 그 위치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영역은 직접적으로 마주칠 수 없다. 언제나 정신적 중간세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음성형식, 다른 한편으로는 「물건」과 「일」이라는 양자의 결합을 가능케 하는 사고상(Gedankengebilde)이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정신적 중간세계를 다음과 같이 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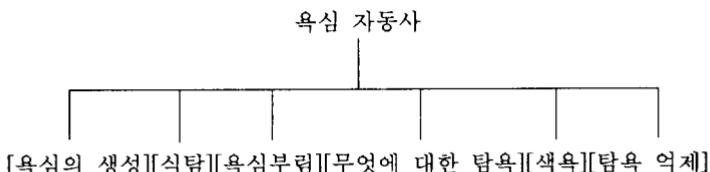
Lautformen	geistige Zwischenwelt	Außenwelt
------------	-----------------------	-----------

체계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 II. 욕심 자동사의 내용

욕심 자동사는 무엇에 대하여 욕심이 생기는 내용, 음식을 탐내는 내용, 욕심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내용, 무엇에 대하여 욕심내는 내용, 색욕에 대한 내용, 탐욕을 절제하는 내용으로 상위 분절하여 논의하려 한다. 이들의 분절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1] 욕심 자동사의 상위 분절구조



욕심 자동사는 “몹시 하고자하거나 가지고 싶어 탐을 내다”的 내용 (inhalt)<sup>10)</sup>을 함유하고 있어 <욕심성>이 공통으로 부가된다.

	Gedankengebilde	Erscheinungsfülle
Baum →	Baum ←	← Dinge
Tisch →	Tisch ←	← Sachen

10) 金敏洙(1983:13)는 “언어는 음성형식으로써 정신 내용을 전달한다. 그런데, 형식적인 음성은 물리현상이며, 내용인 의미는 순전한 정신 현상이다. 정신 현상의 연구는 심리학의 영역이지만, 전달 행위에서 음성과 관련지어진 심리현상은 언어학의 대상이다”고 하였다.

이병찬, 신수종(1984:757)은 “언어 내용이란 정신적 언어적 중간세계의 구조로서의 모국어적 세계상이요, 음형태와 외계, 현실과의 중간에 위치해서 언어화되기 이전의 외계, 현실의 사상, 대상물이 중간세계에서 특정 언어공동체에 의해서 언어화

## 1. 욕심이 생기는 분절구조

다음 (1-12)까지는 마음속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내용이므로 <욕심 생성성>이 공통으로 부가된다.

- |                 |                |
|-----------------|----------------|
| (1) 구미나다(口味一)   | (2) 구미돋우다(口味一) |
| (3) 구미동하다(口味動一) | (4) 욕심나다(慾心一)  |
| (5) 욕심부리다(慾心一)  | (6) 욕기부리다(慾氣一) |
| (7) 발욕(發慾)하다    |                |

위의 (1)은 “욕심이 나다”의 개념이니, 욕심의 생성이 자연발생적이므로 <욕심 생성성>이 추가되고, 또 “입맛이 생기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구미 생성성>을 가지고 식욕의 발(Feld)에서도 분절하고, (2)는 “욕심이 생기게 하다”의 개념이므로, 어떤 조건에 의하여 욕심이 생기는 것이므로 <욕심나게 조성성>이 추가되며, 또 “먹고 싶도록 입맛이 동하게 하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입맛나게 조성성>이 추가된다. 그리고, (3)은 “무엇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의 개념이니, 소유욕의 생성이 분절성이 되어 <소유욕 생성성>이 추가되고, 또 “입맛이 돋아 먹고 싶게 되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입맛 생성성→먹고 싶은 심정성>이 추가되며, (4-7)은 “몹시 하고자 하거나 가지고 싶어서 탐나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뭇시 하고 싶은 심정과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분절성이 되므로 <몹시 하고 싶은 심정성>과 <소유욕 생성성>이 내용에 따라 공통으로 부가되는 유의어(類義語)<sup>11)</sup>이므로 한 동아리에 묶었다. 이들 중 ‘욕심나다’는 우리 언어 현실에서 자주 쓰이고

된 정신적 대상물을 말한다”고 하였다.

11) Palmer,F.R.(1976:95)는 “유의성은 의미의 동질성을 뜻한다. 감정적 의미(emotive meaning) 또는 평가적 의미(evaluative meaning)에서 다르나 인지적 의미(cognitive meaning)는 동일하다”고 하였다.

남기심 외2인(1985:156)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나 똑같은 개념적 의미, 감정적 어조, 정서적 가치를 지니고 쓰이는 동의어들은 존재하기 힘들다. 고로 유의어라 부르는 것이 편리하다. 우리말에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립으로 되는 유의어의 유형이 크게 발달되어 있으며, 또한 외래어와의 대립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있으나 사전(辭典)<sup>12)</sup>에는 공백(lexical gap)<sup>13)</sup>으로 되어 있다.

- (8) 탐나다(貪-)
- (10) 개염나다
- (12) 거미치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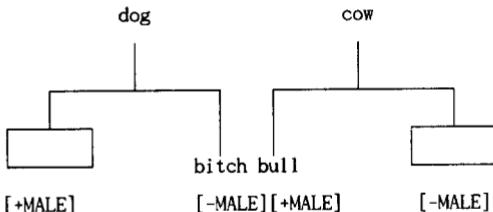
- (9) 비위당기다(脾胃-)
- (11) 계염나다

위의 (8)은 “마음에 꼭 들어 뭍시 가지고 싶거나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다”의 개념이니, 매혹이 되어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분절성이 되어 <매혹성→강력한 소유욕 생성성>이 추가되고, 또 “매우 소담하거나 마음에 들어 부러워하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매우 소담성+매혹성→선망성>이 추가된다. 그리고, (9)는 “무엇에 욕심이 생겨 마음이 끌리다”의 개념이니, 매료되는 것이 분절성이 되어 <무엇에 욕심 생성성→매료된 상태성>이 추가되고, (10-12)는 “부러운 마음으로 시샘하여 탐욕이 생기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선망과 질투 및 탐욕이 생성됨이 분절성이 되어 <선망성→질투성→탐욕 생성성>이 공통으로 추가되는 유의어이므로 한 동아리에 뮤었다. 앞에서 논의한 욕심이 생기는 분절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12) 한인희(1976:49)는 “언어학의 필수 문헌인 사서에 대하여 그것을 너무 존엄시하고 도전의 전의조차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사서는 오늘날의 언어학의 발달 내지 시대적 조류에 너무나 격리된 인상을 풍기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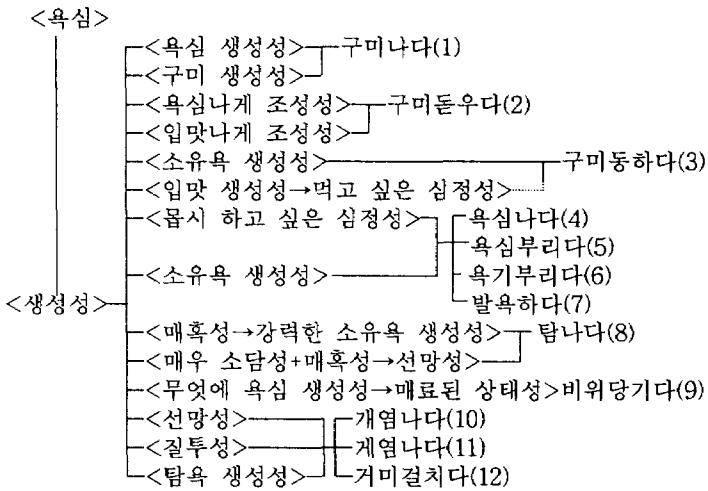
“기존의 사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발전되는 언어 문화 속에서 적절한 어휘의 사용과 이해는 점점 복잡다기화하는 어휘체계와 더불어 효율적인 실효률 거두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종래 어휘집의 이용도는 단조로우며 다양한 방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서의 효율을 높리기 위하여 어휘의 구조적인 분석을 본격적으로 학문화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 하겠다”.고 하였다.

13) 李益煥(1986:95)은 “공백(lexical gap)은 어휘체계 내에 있을 법한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부분장(sub-field)에서 어휘가 둘 기대되는데 사실은 하나가 결여된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보기를 들고 있다.



같은 수형도(tree diagram)<sup>14)</sup>가 된다.

[그림2] 욕심이 생기는 분절구조



## 2. 탐식하는 분절구조

다음 (13-30)까지는 무엇을 먹고 싶어하는 내용이므로 <식탐성>이 공통으로 부가된다.

- (13) 식탐(食貪)하다
- (15) 목젖떨어지다
- (17) 걸신나다

- (14) 탐식(貪食)하다
- (16) 걸신들리다
- (18) 건걸들리다

14) 언어의 분석을 수형도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오늘날 언어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19세기 종업 A.Schleider가 생물학의 본보기에 따라, 인구어의 분화 과정을 수형도로 표시한 데서 유래한다. 특정적 성분의 도식화 방법에는 수형도(tree diagram) 방식, 공간분할(space) 방식, 뮤음(matrix) 방식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변별의 경계성과 그리기 쉬운 잇점을 고려하여 수형도 방식을 취한 것이다. 성분의 도식화 방법에는 E.A.Nida(1979:40)참조.

위의 (13-14)는 “음식을 욕심껏 탐내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음식을 탐내는 심정성>이 공통으로 추가되나, (14)는 “탐내어 먹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탐내어 먹는 행위성>이 더 추가되어 분절한다. 그리고, (15)는 “너무 먹고 싶어하다”의 개념이니 <몹시 먹고 싶은 심성성+비유적 표현성>이 추가되고, (16-18)은 “굶주리어 음식에 대한 욕심이 몹시 낫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굶주린 상태성→몹시 식탐성+비유적 표현성>이 공통으로 추가된다.

- (19) 낭탐(狼貪)하다
- (21) 게걸들리다
- (23) 감질내다(疳疾-)

- (20) 게걸들다
- (22) 감질나다(疳疾-)

위의 (19)는 “이리와 같이 배부른 것도 생각지 않고 자꾸 욕심을 내다”의 개념이니, 포식하고도 탐식하는 것이 분절성이 되어 <이리처럼 포식성→계속 식탐성+비유적 표현성>이 추가되고, (20)은 “염치없이 먹고 싶어하는 식탐이나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다”의 개념이므로, 염치없는 마음이 분절성이 되어 <염치없이 식탐성>과 <하고 싶은 욕심 생성성>이 내용에 따라 추가된다. 그리고, (21)은 “먹고 싶은 욕심이나 하고 싶은 욕심이 때때로 생기다”의 개념이니, 식탐과 욕심이 때때로 일어남이 분절성이 되어 <때때로 식탐 생성성>과 <때때로 욕심 생성성>이 내용에 따라 추가되고, (22-23)은 “몹시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거나 하고 싶어서 애탏는 마음이 생기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몹시 식탐성→애탏는 심정성>과 <몹시 소유욕 생성성→애탏는 심정성> 및 <몹시 욕망 생성성→애탏는 심정성>이 내용에 따라 공통으로 추가되는 유의어이다.

- (24) 침삼키다
- (26) 수연(垂涎)하다
- (28) 군침흘리다

- (25) 침흘리다
- (27) 군침삼키다
- (29) 유연(流涎)하다

위의 낱말들은 “먹고 싶어 하거나 자기 소유로 하고자 탐을 내고 부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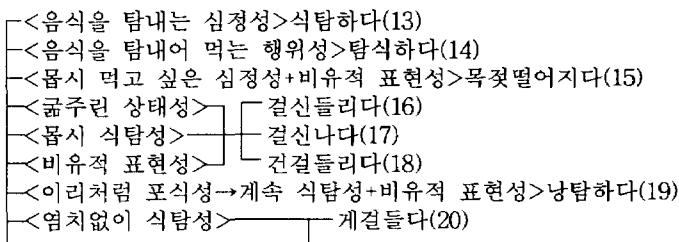
하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식탐과 소유욕과 선망함이 분절성이 되어 <식탐성→선망성+비유적 표현성>과 <소유욕 생성성→선망성+비유적 표현성>이 내용에 따라 추가되나, (24-26)은 <약한 정도>가 공통으로 추가되며, (27-29)는 <강한 정도>가 공통으로 추가된다. 그리고, (24)는 “침을 삼키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침삼키는 행위성>이 추가되고, (25-26)은 “침이 입 밖으로 나오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침흘리는 행위성>이 공통으로 추가되며, (27)은 “군침을 삼키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침삼키는 행위성>이 추가된다. 그리고, (28-29)는 “군침이 입 밖으로 나오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군침흘리는 행위성>이 공통으로 추가되어 분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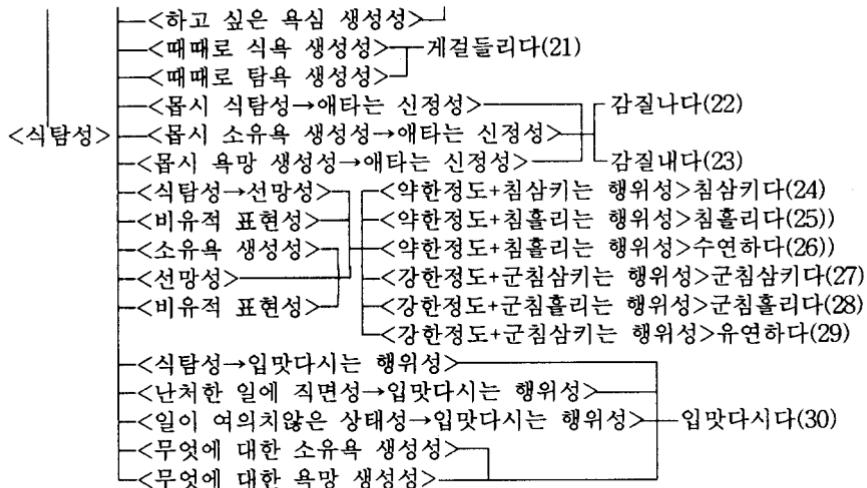
### (30) 입맛다시다

이는 “음식이 먹고 싶거나 난처한 일 또는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을 당했을 때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하며 침을 넘기다”의 개념이니, 식탐과 난처한 일에 직면했거나 일이 여의치않은 상태가 분절성이 되어 <식탐성→입맛다시는 행위성>과 <난처한 일에 직면성→입맛다시는 행위성> 및 <일이 여의치않은 상태성→입맛다시는 행위성>이 내용에 따라 추가되고, 또 “무엇을 가지고 싶어하거나 하고 싶어하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으므로 <무엇에 대한 소유욕 생성성>과 <무엇에 대한 욕망 생성성>도 내용에 따라 추가되어 분절한다. 앞에서 논의한 식탐하는 분절구조는 다음과 같다.

### [그림3] 식탐하는 분절구조

<욕심>





### 3. 욕심부리는 분절구조

다음 (31-45)까지는 욕심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내용이므로 <욕심을 행위로 표출성>이 공통으로 부가된다.

- (31) 충욕(充慾)하다
- (33) 개염부리다
- (35) 개염내다
- (37) 개염피우다

- (32) 개염내다
- (34) 개염피우다
- (36) 개염부리다

위의 (31)은 “욕심을 채우다”의 개념이니 <욕심 채우는 행위성>이 추가되고, (32-37)은 “부러운 마음으로 새암하여 탐내는 행동을 나타내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선망과 시새움과 탐욕을 행위로 표출하는 것이 분절성이 되어 <선망성→질투성→탐욕을 행동으로 표출성>이 공통으로 추가되는 유의어이므로 한 동아리에 묶었다.

- (38) 널름거리다
- (40) 널름널름하다

- (39) 늘름거리다
- (41) 늘름늘름하다

위의 날말들은 “탐을 내어 입맛을 다시며 자꾸 고개를 내밀고 엿보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탐욕으로 소유욕이 생겨 선망하여 기회를 엿보는 것이 분절성이 되어 <탐욕성→소유욕 생성성→선망의 눈으로 기회를 엿보는 행위성>이 공통으로 추가되고, 또 “혀나 입 따위를 날쌔게 내었다 들였다하다”的 개념도 공유하고 있으므로 <혀나 입을 날름거리는 행위성>을 가지고 동작동사의 밭에서도 분절한다. 그런데, 이들은 지속성(持續性)을 지닌 [거리다]<sup>15)</sup> 접사와 단속성(斷續性)을 지닌 [-하다]<sup>16)</sup> 접사의 교체로 어감(語感)<sup>17)</sup>

15) 신현숙(1986:81)은 [-거리다]를 다음과 같이 의미 분석하고 있다.

- ① 화자의 흉내말인 어근을 동적인 표현으로 바꾸기 위하여 [-거리다]를 선택하고 있다.
- ② 어근이 지시하는 흉내말을 연속되는 움직임으로 바꾸기 위하여 선택한다. 움직임이 2회 이상 계속될 때 선택한다.
- ③ 움직임의 양끝을 인지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않은 움직임처럼 인지한다.
- ④ 동적인 표현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정적인 어근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 ⑤ 움직임, 소리, 느낌, 생김새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어근은 제한을 받는 정도가 높다.
- ⑥ 완성된 움직임이라고 화자가 인지되면 선택하지 않는다.

16) 신현숙(1986:97)은 '-하다'의 의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① 두 개의 어근을 선택한다.
- ② 정적인 어근과 결합한다.
- ③ 낮은 의미의 어근/문맥/상황과 관련되지 않는다.
- ④ 움직임의 전체에 초점을 둔다.
- ⑤ 시간의 변화나 정도가 관련되지 않는다.

17) 金敏洙(1972:142)는 “국어의 어감 표현은 母音相對의 차이(指小意素), 子音加勢의 차이(加勢意素). 음절의 길이, 叠形, 말음변환이다. 상징에는 거의 음의 반복으로 된 첨어들이다. 즉 音相의 對蹠(antipodes)에 따라 어감의 차이를 가장 인상 깊게 하는 의미의 전이(semantic shift)이다”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표로 보여 주고 있다.

母音音素	덧意素
ㅏ ㅓ ㅗ(녀) ㅜ ㅑ ㅣ ㅔ ㅜ(귀) ㅡ ㅣ	小 少 明 急 輕 清 鏡 陽 薄 強 大 多 暗 緩 重 濁 鏽 陰 厚 弱

子音音素	덧意素	語感의 크기
ㅂ ㄷ ㅈ ㅅ ㅌ ㅊ ㅍ ㅎ	順平·普通	예사 어감

의 차이에서 오는 뉘앙스에 의하여 서로 분절하므로 (38-39)는 <지속성>이 추가되고, (40-41)은 <단속성>이 추가되어 서로 분절한다.

(42) 눈총쏘다

(44) 허손하다(虛損-)

(43) 눈총주다

(45) 혁하다

위의 (42-43)은 “몹시 가지고 싶은 대상을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탐욕나는 대상을 선망의 눈으로 응시성>이 공통으로 추가되고, 또 “몹시 미워하는 대상을 독기 띤 눈으로 노려보다”의 개념도 공유하고 있어 <몹시 미운 대상을 독기를 띠고 응시성>도 공통으로 추가된다. 그리고, (44)는 “사물에 대한 탐욕이 심히 많아서 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지고자 덤피다”의 개념이니 <사물에 대한 극심한 탐욕성→주기 전에 가지고자 덤피는 행위성>이 추가되고, (45)는 “갑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때에 탐욕이 나서 덤피다”의 개념이므로 <갑자기 탐욕 생성성→덤피는 행위성>이 추가되며, 또 “몹시 지쳐서 물러나거나 자빠지다”의 개념일 경우는 <몹시 지친 상태성→물러서는 행위성>과 <몹시 지친 상태성→부도성>을 가지고 이동동사의 밭에서도 분절하고, “몹시 놀라거나 겁에 질려 숨을 드리마서 호흡을 중지하는 소리를 내다”의 개념일 경우는 <몹기 경악성→숨막히는 소리 발성성>과 <몹시 공포성→숨막히는 소리 발성성>을 가지고 놀람과 무서움의 밭에서도 분절하는 다의어이다. 앞에서 논의한 욕심부리는 분절구조는 다음과 같다.

#### [그림4] 욕심부리는 분절구조

&lt;욕심&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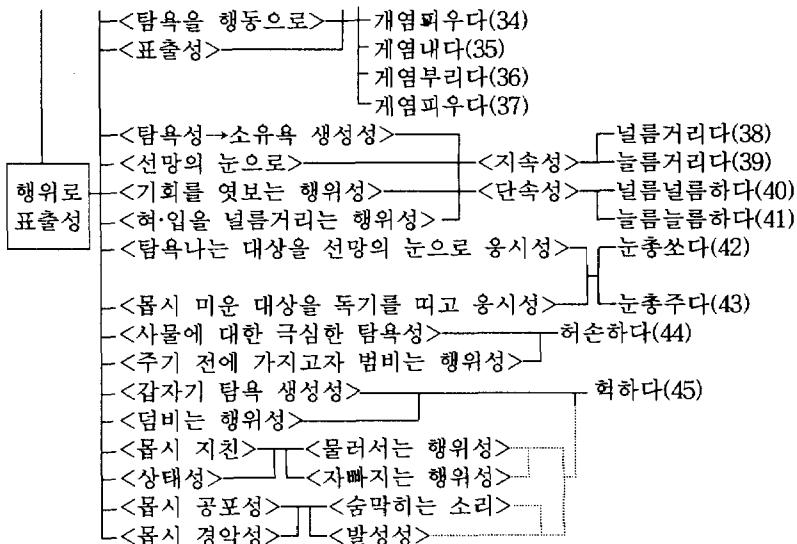
&lt;욕심 채우는 행위성&gt;충욕하다(31)

[개염내다(32)]

&lt;선망성→질투성&gt;[개염부리다(33)]

幽 匹 又 刂 𠂇 𠂇 𠂇	銳利·輕小 硬濁·鉛重	센 어감 계센 어감
---------------------------------	----------------	---------------

단 語感 부분은 필자가 첨가한 것이다.



#### 4. 무엇에 대해 탐욕나는 분절구조

다음 (46-63)까지는 욕심나는 대상이 분절성이 되므로 <무엇에 대해 욕심성>이 공통으로 부가된다.

(46) 구투(苟偷)하다  
 (48) 탐재(貪財)하다

(47) 투안(偷安)하다  
 (49) 탐련(耽戀)하다

위의 (46)은 “눈 앞의 안일을 탐하다”의 개념이니, 목전의 안일이 분절성이 되어 <목전의 안일에 탐심성>이 추가되고, (47)은 “해야 할 일보다 눈 앞의 일을 탐하다”의 개념이므로, 자기의 직무보다는 안일무사를 꾀하는 것이 분절성이 되므로 <직무 유치성→안일무사 모도성>이 추가되며, 또 “안일을 꾀하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안일무사 도모성>이 추가되고, “순간적으로 꾀하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순간적으로 도피성>을 가지고 이동동사의 발에서도 분절한다. 그리고, (48)은 “재물을 탐하다”의 개념이니, 재

물이 대상이 되어 <재물에 탐욕성>이 추가되고, (49)는 “재물 따위를 텁내어 생각하다”의 개념이므로 <재물에 탐욕성>이 추가되며, 또 “연애에 마음이 쏠려 겉잡을 수 없이 그리워하여 온 정신이 빠지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연애에 탐닉성→심히 연모성→이성 상실성>을 가지고 사랑의 날말밭에서도 분절한다.

(50) 낄록하다<sup>18)</sup>

(52) 치를떨다

(51) 탐애(貪愛)하다

(53) 탐도불법(貪饕不法)하다

위의 (50)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다”의 개념이니, 남의 물건이 대상이 되어 <남의 물건에 탐욕성+비유적 표현성>이 추가되고, 또 “음식을 통채로 삼키려고 목을 빼고 연해 괴로워하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으므로 <통채로 된 음식 병탄에 고통성>을 가지고 식생활의 밭에서도 분절하며, (51)은 “남의 물건을 탐내고 제 것은 꽤 아끼다”의 개념이니, 남의 물건이 대상이 되어 <남의 물건에 탐욕성+자선에 인색성>이 추가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 집착하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으므로 <애정에 집착성+불교의 교리성>을 가지고 종교의 밭에서도 분절한다. 그리고, (52)는 “매우 인색스러워 내어 놓기를 꺼리다”의 개념이니, 인색함이 분절성이 되어 <매우 인색성→자선행위 기피성+비유적 표현성>이 추가되고, 또 “몹시 분을 내어 치를 떨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으므로 <분노성→치를 떠는 행위성>이 추가되며, (53)은 “재물을 탐내어 법을 어기다”의 개념이니 재물이 대상이 되어 <재물에 탐욕성→불법 행위성>이 추가되어 분절한다.

(54) 견리망의(見利忘義)하다

(56) 범장(犯贓)하다

(58) 탐장질하다(貪贓-)<sup>19)</sup>

(55) 부정축재(不正蓄財)하다

(57) 탐장(貪贓)하다

18) 서정수(1975:61)는 “‘-하-’는 의태어 곧 부사어를 선행요소로 한 경우에는 동사적으로 쓰이게 한다. ‘독서하다’의 ‘하다’는 동사적 형식을 갖추기 위한 형식요소로 볼 수 있다. 실지 동작 내용은 ‘독서’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19) 서정수(1975:25)는 “동작성 선행요소+질(M+질)는 국어의 비동작성 명사의 일부, 동

위의 (54)는 “이익을 보면 의리를 돌보지 아니하다”의 개념이니, 이익에 눈이 어두워 의리를 저버림이 분절성이 되어 <이익에 미혹성→의리를 잊는 행위성>이 추가되고, (55)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축재하다”의 개념이니, 불법으로 축재함이 분절성이 되어 <부정한 행위로 축재성>이 추가된다. 그리고, (56-58)은 “관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관리가 부정축재함이 분절성이 되어 <[관리]→부정한 방법으로 축재성>이 공통으로 추가되나, (58)은 속된 표현이므로 <속된 표현성>이 더 추가되어 분절한다.

(59) 감투탐내다

(60) 탐위(貪位)하다

(61) 탐권(貪權)하다

(62) 탐권낙세(貪權樂勢)하다

(63) 탐정(貪政)하다

위의 (59)는 “벼슬을 탐내다”의 개념이니, 벼슬이 대상이 되어 <벼슬에 탐욕성>이 추가되고, (60)은 “높은 지위를 탐내다”의 개념이므로, 높은 지위가 대상이 되어 <고위직에 탐욕성>이 추가된다. 그리고, (61)은 “권세를 탐내다”의 개념이니, 권세가 대상이 되어 <권세에 탐욕성>이 추가되고, (62)는 “권세를 탐내고 권세를 부리기를 즐겨하다”의 개념이므로, 권세가 대상이 되고 새도부리는 행위가 분절성이 되어 <권세에 탐욕성→새도 향유성>이 추가되므로 (61)과는 정도면에서 단계적 대립(Graduelle Opposition)<sup>20)</sup>을 이루

---

작성 명사의 일부, 동사의 어간 등에 ‘-질-’이 첨가되면 ‘-하-’의 선행요소가 된다. 그리고 ‘-질-’은 ‘노릇’이라는 말과 같이 동작성 기능 표시의 의미요소이다. Martin 은 ‘-질-’을 ‘act, behavior, way of doing’이라 하였고, 송병학이 ‘action nominal marker’라 한 것도 동작성 표시 기능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이 첨가되면 품위 없는 말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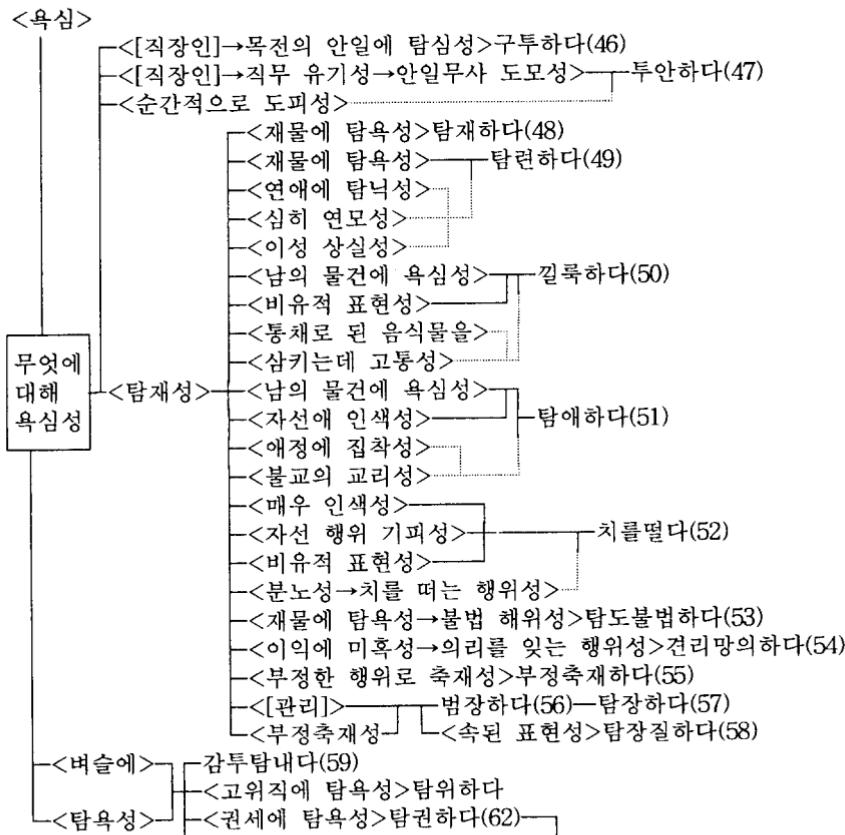
20) Horst Geckeler.(1973:25)는 “Graduelle Opposition sind solche Glieder durch verschiedene Grade oder Abstufungen derselben Eigenschaft gekennzeichnet sind...”라고 하였다.

허 발(1997:453)은 이탈리아말 온도 형용사의 단계적 대립을 다음과 같이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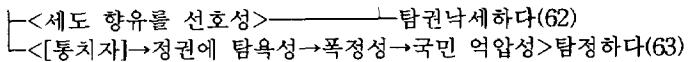
gelato	freddo - fresco - tiepido - caldo	bollente(끓는 듯이 뜨거운)
(언, 대단히)		
		scottante(타는 듯이 뜨거운)

고 있다. (63)은 “통치자가 탐욕을 부려 국민을 억압하는 포악한 정치를 하다”의 개념이니, 탐욕의 대상은 정권이고 주체자는 통치자이므로 <[통치자] → 정권에 탐욕성 → 포악한 정치성 → 국민 억압성>이 추가되어 분절한다. 앞에서 논의한 무엇에 대한 탐욕의 분절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5] 무엇에 대한 탐욕의 분절구조(1)



추운 ghiacciato (언)	(찬, 추운)(서늘한)(포근한 훈훈한)	(따뜻한) rovente(불타는 듯이 뜨거운) candente(작열하듯이 뜨거운)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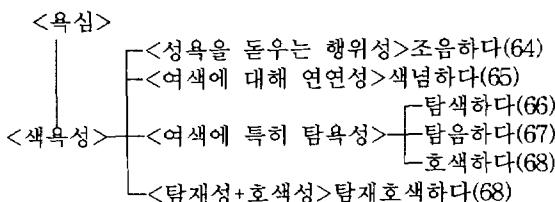
## 5. 색욕의 분절구조

- (64) 조음(助淫)하다
- (66) 탐색(貪色)하다
- (68) 호색(好色)하다

- (65) 색념(色念)하다
- (67) 탐음(貪淫)하다
- (69) 탐재호색(貪財好色)하다

위의 날말들은 색욕의 내용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색욕성>이 공통으로 추가된다. 따라서, (64)는 “성욕을 돋우다”의 개념이니, 성욕이 분절성이 되어 <성욕을 돋우는 행위성>이 추가되고, (65)는 “여색에 대하여 생각하다”의 개념이므로 <여색에 대해 연연성>이 추가된다. 그리고, (66-68)은 “여색을 특별히 탐내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여색에 특히 탐욕성>이 공통으로 추가되고, (69)는 “재물을 탐내고 여색을 즐기다”의 개념이므로 <탐재성+호색성>이 추가되어 분절한다. 이들의 분절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6] 색욕의 분절구조



## 6. 탐욕 절제의 분절구조

다음 (70-82)까지는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는 내용이므로 <탐욕 절제성>이 공통으로 부가된다.

- (70) 금욕(禁慾)하다

- (71) 억정(抑情)하다

- (72) 징질(徵窒)하다  
 (74) 절욕(節慾)하다

- (73) 제욕(制慾)하다

위의 (70)은 “사람의 정신적·육체적인 욕구나 욕망, 성욕을 억제하고 금하다”的 개념이니 <정신적·육체적인 욕구·욕망·성욕을 억제성+금지성>이 추가되고, (71)은 “욕정을 억누르다”的 개념이므로, 욕정이 대상이 되어 <욕정 억제성>이 추가되며, (72)는 “사정을 억제하다”的 개념이니, 사정이 대상이 되어 <사사로운 정을 억제성>이 추가된다, 그리고, (73-74)는 “욕심을 억제하다”的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욕심이 대상이 되어 <욕심 억제성>이 추가되나, (74)는 “색욕을 절제하다”的 개념도 가지고 있어 <색욕 절제성>이 더 추가되어 분절한다.

- (75) 청심과욕(清心寡慾)하다  
 (77) 멸사(滅私)하다  
 (79) 징분질욕(懲忿窒慾)하다

- (76) 계결떼다  
 (78) 멸사봉공(滅私奉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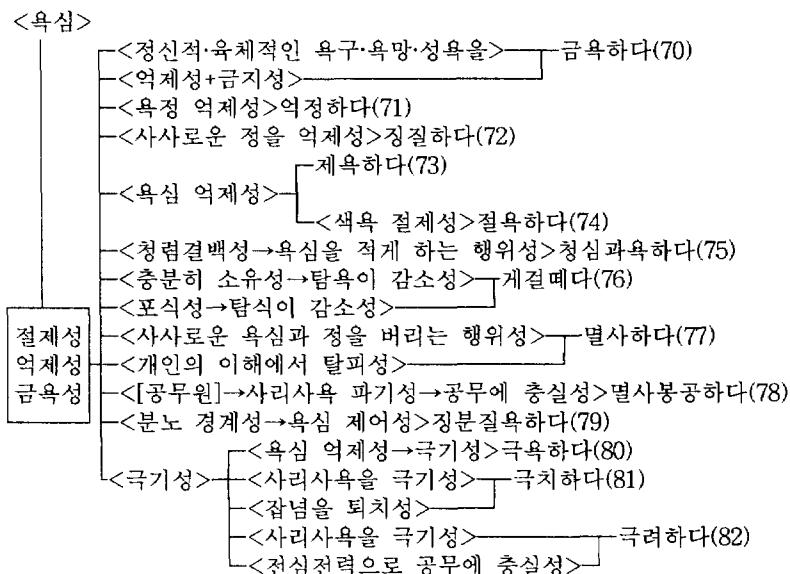
위의 (75)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욕심을 적게 하다”的 개념이니,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분절성이 되어 <청렴결백성→욕심을 적게 하는 행위성>이 추가되고, (76)은 “마음껏 먹거나 가지거나 하여서 탐욕이 떨어지게 된다”的 개념이므로 <충분히 소유성→탐욕이 감소성>과 <포식성→탐식이 감소성>이 내용에 따라 추가된다. 그리고, (77)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사사로운 정을 버리다”的 개념이니 <사사로운 욕심·정을 파기성>이 추가되고, 또 “개인의 이해를 떠나다”的 개념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이해에서 탈피성>이 추가되며, (78)은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하여 힘써 일하다”的 개념이니 <사리사욕 파기성→공무에 충실성>이 추가된다. (79)는 “분한 생각을 경계하고 욕심을 막다”的 개념이니 <분노 경계성→욕심 제어성>이 추가되어 분절한다.

- (80) 극욕(克慾)하다  
 (82) 극려(克勵)하다

- (81) 극치(克治)하다

위의 (80)은 “탐욕한 생각을 눌러 이기다”의 개념이니, 탐욕심을 억제함이 분절성이 되어 <탐욕심 억제성→극기성>이 추가되고, (81)은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어 잡념을 물리치다”의 개념이므로 <사리사욕 극기성→잡념을 퇴치성>이 추가된다. 그리고, (82)는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고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하다”的 개념이니 <사리사욕 극기성→전심전력성→근면성>이 추가되어 분절한다. 앞에서 논의한 탐욕을 절제하는 분절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6] 탐욕 절체의 분절구조



### III. 마무리

지금까지 욕심에 관련된 자동사 82개 낱말에 대하여 개별적인 분절성을 논의하였다. 이제 이것을 토대로하여 전체적인 분절구조를 고찰하려 한다. 먼저 상위분절에 관여된 낱말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욕심 자동사의 내용별 분포도

욕심	식탐	대상	욕심부림	억제	생성	성욕	계
어휘수	18	18	15	14	12	6	82
백분율	21.95	21.95	18.29	17.07	14.63	7.32	100%

위의 분포로 보아 욕심 자동사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내용과 무엇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내용에 가장 많은 어휘가 실현되어 있고, 욕심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내용과 욕심을 억제하는 내용 및 욕심이 일어나는 순으로 관심이 드러나 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분포된 순으로 살펴보려 한다.

(1) 욕심 자동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내용의 수는 101개로 늘어난다. 무엇을 가지고 싶어하는 내용이 15개(14.85%)로 가장 많고,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내용이 7개(6.93%)로 다음으로 많으며, 무엇을 뽑시하고 싶어하는 내용과 부러워하고 시샘하며 욕심부리는 내용 및 호색하는 내용이 각각 6개(5.94%)로 세 번째로 많다. 그리고, 탐식하는 내용과 욕심이 생기는 내용 및 욕심을 억제하는 내용이 각각 5개(4.95%)이고, 가지고 싶어 널름거리는 내용과 부정축재하는 내용이 각각 4개(3.96%)이며, 굶주려 식탐하는 내용과 벼슬을 탐내는 내용 및 욕심을 물리치고 열심히 일하는 내용이 각각 3개(2.97%)이다. 탐나는 대상을 노려보는 내용, 안일무사를 꾀하는 내용, 재물에 욕심내는 내용, 남의 물건을 탐내는 내용, 권세를 탐내는 내용,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무에 충실한 내용이 각각 2개(1.98%)이고, 욕심이 생기는 내용, 욕심나게 하는 내용, 입맛나게 하는 내용, 매우 소답하여 부러운 내용, 포식하고도 계속 탐식하는 내용, 염치없이 식탐하는 내용, 욕심을 채우는 내용, 사물에 대해 욕심이 많아 주기도 전에 넘버드는 내용, 갑자기 욕심이 생겨 대드는 내용, 매우 인색하여 자선을 베풀지 않는 내용, 재물에 탐이나서 법을 어기는 내용, 이익에 매혹되어 의리를 저버리는 내용, 정권을 탐내어 백성을 억압하고 폭정을 하는 내용, 호색하고 재물을 탐내는 내용,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금지하는 내용, 욕정을 억제하는 내용, 사사로운 정을 억제하는 내용이 각각 1개(0.99%)이다.

위와 같은 분포로 보아 우리 언어공동체(Sprachgemeinschaft)<sup>21)</sup>는 소유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내용과 부러워 질투하여 욕심부리는 내용 및 성욕에도 깊은 관심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는 내용과 욕심을 억제하는 내용 및 욕심내어 음식을 먹는 내용에도 비교적 많은 관심이 표현되어 있다.

(2) 욕심을 내는 주체는 막연히 일반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63개(76.83%)이고, 공무원이 9개(10.98%)이며, 호색가가 6개(7.32%)이다. 그리고, 직장인이 2개(2.44%)이고, 통치자와 금욕주의자가 각각 1개(1.22%)이다.

(3) 욕심의 대상이나 욕심을 낼 때에 등장하는 객체는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객체의 수는 94개로 늘어난다. 욕심이 25개(26.6%), 음식이 20개(21.28%), 성욕과 재물이 각각 9개(9.57%), 가지고 싶은 물건이 7개(7.45%), 사리사욕이 4개(4.26%), 굶주린 상태가 3개(3.19%), 입맛, 안일무사, 벼슬, 권세, 사사로운 정이 각각 2개(2.13%), 이리, 통치, 백성, 정권, 잡념, 청렴결백, 모든 욕망이 각각 1개(1.06%)이다.

(4) 욕심이 생기는 원인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그 수는 108개로 늘어난다. 이들의 원인은 부러워하는 마음이 22개(20.37%)로 가장 많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17개(15.74%)로 다음으로 많으며, 가지고 싶은 마음이 15개(13.89%)로 세 번째로 많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11개(10.19%)이고, 성욕이 일어남이 7개(6.48%)이며, 시새움하는 내용과 욕심을 억제하려는 마음이 각각 6개(5.56%)이다. 무엇에 매혹됨과 무엇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이 각각 4개(3.7%)이고, 굶주린 상태, 권세욕, 극기심이 각각 3개(2.78%)이며, 안일무사를 피하는 마음, 출세욕, 멸사봉공정신이 각각 2개(1.85%)이다. 그리고, 정권욕이 1개(0.93%)이다. 따라서 욕심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을 부러워함과 음식을 먹고 싶은 것에 집중되어 있고, 가지

21) Leo Weisgerber(1967:21)는 “der Inbegriff der Menschen, die in Wirkungszusammenhang der stehen”.이라고 하였다. 언어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것은 모국어의 세계상이다. 즉 모국어의 작용을 통해 언어공동체 전구성원들이 공통의 차원에 올라서고, 이러한 차원 위에서 그들의 정신적 만남이 가능하다. 물론 모국어의 세계상은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언어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형성된다.

고 싶은 마음과 재물에 대한 욕심 및 성욕도 중요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5) 욕심을 걸으로 표출하는 행동이나 방법 및 상태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그 수는 89개로 늘어난다. 먹고 싶은 상태가 11개(12.36%)로 가장 많고, 가지고 싶은 마음, 개염부리는 행위, 재물을 탐내는 마음, 성욕이 일어나는 상태가 각각 6개(6.74%)로 다음으로 많으며, 남의 것을 넘실거리는 행위와 욕심을 억제하는 행위가 각각 4개(4.49%)이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는 상태, 질투심, 부러워하는 행위, 침삼키는 행위, 침흘리는 행위, 극기하는 행위가 각각 3개(3.37%)이고, 입맛이 생기는 상태, 매혹된 상태, 덤벼드는 행위, 눈총주는 행위, 안일무사를 피하는 행위, 권세욕, 벼슬을 탐내는 마음, 멸사봉공하는 행위가 각각 2개(2.25%)이며, 입맛나게 하는 행위, 입맛다시는 행위, 욕심채우는 행위, 정권을 탐내는 행위, 금욕생활, 욕정을 억제하는 행위, 사사로운 정을 억제하는 행위, 충분히 가지고 있어 욕심이 감소되는 상태가 각각 1개(1.12%)이다.

따라서, 먹고 싶은 상태와 가지고 싶은 상태가 주된 내용이고, 성욕이 일어나는 상태도 중요한 표출의 방법으로 드러나 있다.

(6) 욕심 자동사는 바람직한 내용이 69개(84.15%)이다. 이들의 내용 중 필자가 느끼기에 특히 부정적인 내용은 부정축재, 개염부리는 행위, 널름거리 는 행위, 권세를 탐내는 행위가 각각 4개(4.88%)이고, 남의 물건을 탐내는 행위가 3개(3.66%)이며, 욕심내어 덤벼드는 행위와 안일무사를 피하는 행위가 각각 2개(2.44%)이다. 그리고, ‘낭탐하다. 계절들다. 견리망의하다’ 등이 1개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은 탐욕을 억제하는 내용인데 13개(15.85%)가 있다.

(7) 우리 국어는 수적으로 한자어가 많은 편이다. 훈민정음이 비록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문자로 창제되었다 하나, 그것을 실제로 배우고 쓴 계층이 실질적으로 사대부들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사대부들에 의하여 한자어가 한글로 적혀오는 과정에서 한자어는 국어 어휘체계 속에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어 왔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한자어가 계속 증가되어 마침내 국한문

흔용이라는 기구한 문자생활을 하게 된, 이른바 개화기에 와서 오늘날과 같은 한자어 폭주현상을 겪게 된 것이다. 더구나 한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과 문화적 풍토는 고유어에 의한 조어 능력마저 감퇴되기에 이르러 오늘날 우리는 한자어를 쓰지 않고 노래말 한 줄은커녕 편지글 한 대목도 쓸 수 없는 기형적 언어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석보상절뿐만 아니라, 선조대왕의 언문 교지나 숙종 때의 사대부의 편지글들이 고유어로 짜여졌으면서도 얼마나 아름답고 풍부한가를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국어를 다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김종택, 1992:88).

이러한 현상은 욕심 자동사에서도 나타나 한자어는 39개(47.56%)이고, 우리 고유어가 31개(37.8%)이며, 고유어와 혼종어가 융합된 혼종어가 12개(14.63%)이다. 그런데, 서구 외래어가 하나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은 17개(20.73%)이고, 상징어는 8개(9.76%)인데, 이들 중 의태어가 7개(8.54%)이고 의성어는 ‘혁하다’ 하나뿐이다.

### 참고문헌

강호진(1989), “언어발의 형식화 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언어내용연구」. 태종출판사.

高永根(1974), 「現代國語의 接尾辭에 대한 構造的 研究」. 百合出版社.

金璟姬(1995), 「性格」. 민음사.

金光海(1993),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金明勳·鄭永潤(1997), 「心理學概論」. 博英社.

金敏洙(1972), 「新國語學」. 一潮閣.

———(1983), 「國語意味論」. 一潮閣.

金芳漢(1983), 「一般言語學概要」. 一潮閣.

김봉주(1988), 「개념학-의미론의 기초」. 한신문화사.

김시업 역(1994), 「심리학」. 문음사.

- 김유진 외2인 역(1994), 「심리학 개론」. 螢雪出版社.
- 金應模(1989), 「國語平行移動自動詞 날말밭」. 翰信文化社.
- (1993), 「國語移動自動詞 날말밭(1)-平行移動篇」 曙光學術資料社.
- (1993), 「國語移動自動詞 날말밭(2)-垂直移動篇」. 曙光學術資料社.
- (1996), 「韓國語 身體關聯 自動詞 날말밭」. 도서출판 박이정.
- (1997a), 「韓國語 運動競技 動詞 날말밭」. 도서출판 박이정.
- (1997b), 「韓國語 球技競技 動詞 날말밭」. 도서출판 박이정.
- 편저(1997),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도서출판 박이정.
- (1998), 「韓國語 餘暇善用 自動詞 날말밭」. 도서출판 박이정.
- 김종택(1992), 「어휘의미론」. 탑출판사.
- 김중술 저(1998),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鎮宇(1988), 「言語와 心理」. 翰信文化社.
- 金興洙(1989),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탑출판사.
- 남기심 외2인(1985), 「언어학개론」. 탑출판사.
- 류병호(1994), 「술 텔레비전」. 도서출판 여민.
- 리득춘(1996), 「조선어 어휘사」. 도서출판 박이정.
- 朴炳采(1973), 「古代國語研究」. 高麗大 出版部.
- 박영순(1994), 「한국어 의미론」. 고려대 출판부.
- 朴鐘榮(1994), 「心理學概論」. 大旺社.
- 裴禧任(1988), 「國語被動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 서울대 심리학연구실 역(1991), 「집단심리」. 星苑社.
- 서정수(1975), 「동사‘하’ 문법」. 형설출판사.
- 宋秉鶴(1974), “「하」에 관한 연구”. 忠北大 大學院(박사).
- 신수종·이병찬(1984), 「독어학개론」. 한신문화사.
- 신의성(1974): “Weisgerber의 언어이론-해석과 주석적 비판” 「한글」 153호. 한글학회.
- 신현숙(1986), 「의미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신문화사.
- 沈在箕(1983), 「國語語彙論」. 集文堂.

- 우리말내용연구회 편(1994), 「우리말내용연구」. 창간호. 국학자료원.
- (1995), 「우리말내용연구」.2호. 국학자료원.
- 윤진·최상진 역(1990), 「사회심리학」. 探求堂.
- 李庸周(1993), 「한국어의 의미와 문법(1)」. 三知院.
- 李益煥(1986), 「意味論概論」. 翰信文化社.
- 李鉉洙(1989), 「性格 및個人差 心理學」. 祐成文化社.
- 임지룡(1993),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田秀泰(1986), 「國語移動動詞研究」. 翰信文化社.
- 정시호(1994), 「어휘장이론연구」. 경북대 출판부.
- 鄭元容(1996), 「隱喻와 換喻」. 新知書院.
- 최창렬(1988), 「우리말 語源研究」. 一志社.
- 한인희(1976), “국어 어휘의 의미론적 연구-그림씨 어휘를 중심으로-”  
「한글」 157호. 한글학회.
- 허발(1977), “Coseriu의 의미연구와 날말발”. 「언어학」 2.  
한국언어학연구회.
- (1985a), 「낱낱발이론」. 고려대 출판부.
- (1985b), 「언어내용의 핵심문제」. 고려대 출판부.
- (1996), 「언어내용론」. 고려대 출판부.
- (1997), 「현대 의미론의 이해」. 국학자료원.
- 허웅(1989), 「언어학-그 대상과 방법」. 샘문화사.
- 洪大植 譯(1990), 「사회심리학」. 博英社.
- 편역(1994), 「인간관계심리」. 養英閣.
- 洪琡基 譯(1992), 「性格心理學」. 博英社.
- 홍승우(1988), 「의미론입문」. 청록출판사.
- 金光海(1987), 「類意語·反意語 辭典」. 한샘.
- 신기철·신용철(1980),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李家源·張三植(1973), 「詳解漢字大典」. 廣庚出版社.

- 이희승(1985),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 서울대 심리학연구실(1991), 「집단심리」. 星苑社.
- Coseriu, E. 1973. Probleme der Strukturellen Semantik, Tübingen.
- Geckeler, H. 1973. Strukturelle Semantik des Frazösischen.  
Max Niemyer Verlag, Tübingen.
- Kemonoson, R. M. 1977. Semantic Theory. London Cambridge Univ. Press.
- Martin, S. 1954. Korean Morphophonemics. 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Nida, E. A. 1979.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Approches to Semantics). Moution.
- Palmer, F. R. 1976. Semantics. London. Cambridge Uive Prees.
- Ramstedt, G. I. 1939. A Korea Grammer. Helsinki.
- Trier, J. 1973. Der deutsche Wortschatz im Sinnbezirk des Verstandes. Heidelberg.
- Weisgerber, L. 1962.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 Schwann. Düsseldorf.
- . 1964. Das Menschheitsgestz der Sprache. Quelle & Meyer Verlag. Heidelberg.
- . 1967. Sprachgemeinschaft als Gegenstand Sprachwissenschaftlicher Forschung. Westdeucher Verlag.
- . 1971. Die Muttersprache in Aufbau unserer Kultur.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